

2025년 1월 23일(목)

보도자료

이 자료는 1월 24일(금)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23일 배포시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최근 제주 자영업자 경영상황 악화 배경 및 시사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본 보도자료의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박으뜸 과장, 이한새 조사역

Tel : (064)720-2514 Fax : (064)720-2510 E-mail : jeju@bok.or.kr

“한국은행 제주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서 지역본부로 접속)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역 중앙은행』



한국은행 제주본부

(붙임)

최근 제주 자영업자 경영상황 악화 배경 및 시사점

2025. 1.

한국은행 제주본부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으뜸 경제조사팀 과장, 이한새 조사역, 송은주 청년인턴

<조연자> 박동준 경제조사팀장

목 차

< 요약 >

I. 검토 배경	1
II. 최근 자영업자 경영상황	3
1. 자영업자 개황	3
2. 최근 자영업 동향 및 경영상황 평가	6
III. 자영업자 경영상황 악화 요인	16
1. 도내 소비 회복세 지연	16
2. 운영비용 상승	18
3. 과당경쟁 지속	20
IV. 자영업 부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2
V. 정책적 시사점	25

요 약

- ① 제주지역은 자영업이 지역내 사업체수, 고용, 매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그 중요성이 큰 가운데, 자영업 경영상황이 2023년 이후 악화되면서 체감경기 개선세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투자, 부동산·건설, 고용, 금융기관 건전성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 ② 제주지역 자영업은 2023년 이후 매출·소득 성장이 위축되고 부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 관련 서비스업 업황은 2023년 이후 위축·정체되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부진한 가운데, 매출 및 이익 감소 역시 타 지역 대비 컸다. 부채는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가 최근 둔화되고는 있으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의 질이 악화되었다. 폐업률은 매출 감소, 채무부담 증가 등 영향으로 2023년 중 다른 지역보다 큰 폭 상승하였으며, 2024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최근 자영업 경영상황 악화는 ①도내 소비 회복세 지연, ②운영비용 상승, ③과당경쟁 지속 요인에 기인한다. 도내 소비는 구조적 측면에서 인구유입이 2023년 이후 순유출로 전환된 가운데, 경기적 측면에서도 관광객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개선 흐름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이후 판매가격 인상이 제한적인 반면, 재료비·인건비 등 비용상승압력은 지속되면서 운영비용은 상승하였다. 아울러 자영업 업황 악화에도 신규 사업자 진입이 폐업보다 많은 상황이 꾸준히 지속되는 등 과당경쟁이 지속되었다.
- ④ 자영업 부진은 여러 경로를 통해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축 및 건설경기 둔화, ②자영업자 매출 감소에 따른 고용 부진, ③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 ⑤ 단기적으로는 악화된 자영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 비용 경감, 매출기반 확대, 디지털 매체 활용도 제고 등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 창업교육을 활성화 노력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폐업 등 구조조정 지원, 재취업 교육 등을 통해 자영업자가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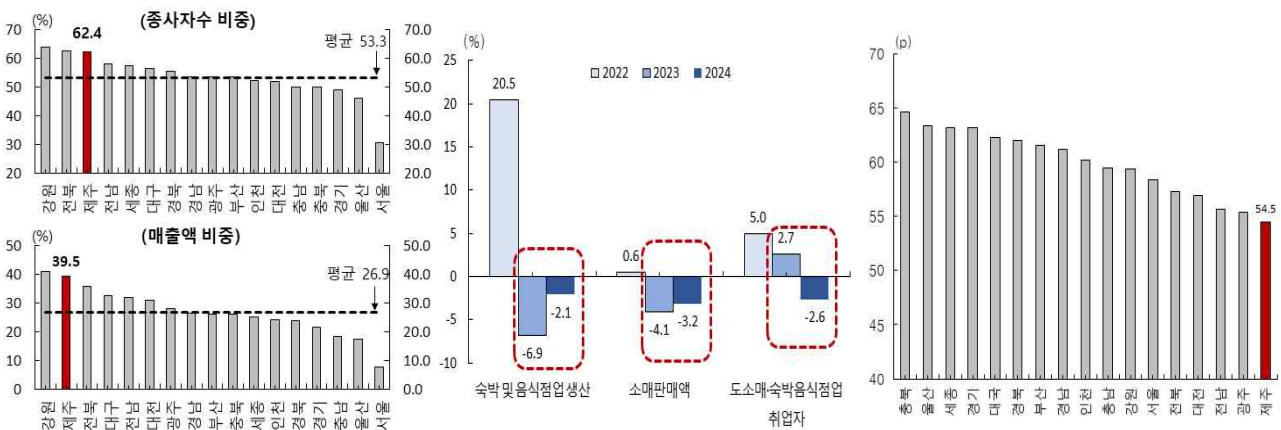
1-1. 제주지역은 자영업¹⁾이 지역내 사업체수, 고용, 매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체감경기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 전체 기업 중 소상공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95.5%(전국 기준 95.1%)로 대다수인데다, 종사자수(고용원 포함)와 매출액 비중이 각각 53.3%, 39.5%로 17개 시도 중 강원, 전북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관광서비스업 등 소규모 서비스업 의존도가 큰 반면, 규모가 큰 대기업·공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경제구조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²⁾

1-2.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영업 경영상황이 2023년 이후 악화되면서 체감경기 개선세도 미약한 상황이다. 숙박·음식업 생산, 소매판매는 관광객수가 줄면서 2023년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에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수도 202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실제 소상공인 BSI와 같이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 수준을 드러내는 심리지표는 최근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지역경제에서 자영업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자영업 부진으로 인해 소비·투자, 부동산·건설, 고용, 금융기관 건전성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3. 이에 본고에서는 2023년 이후 제주 자영업자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경영환경 악화 요인들을 다각도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영여건 악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 체감경기 측면에서 중요한 자영업 경기가 2023년 이후 부진

그림 1-1. 소상공인 종사자 및 매출액 비중 그림 1-2. 자영업 관련 실물경제 지표¹⁾ 그림 1-3. 소상공인 BSI¹⁾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2년 기준)

주 : 1) 2024년 숙박·음식생산, 소매 판매는 1/4~3/4분기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1) 2024.7~12월중 평균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 자영업이란 일반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사업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자영업자’ 통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자’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자영업자의 정의 및 관련 통계’ 참조)
- 2)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관광서비스업의 GRDP 비중(2023년 GRDP 기준)이 제주는 21.7%로 전국(15.3%)에 비해 높다. 한편 300인 이상 사업체(전국사업체 조사, 2023년) 수는 42개(비중 0.04%)로 미미하고, 종사자 수 비중도 전국 평균(15.4%) 대비 낮은 9.9%로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북(9.5%), 대구(9.9%) 다음 작았다.

참고 1 자영업자 정의 및 관련 통계

자영업자란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 목적 및 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체(통계청 사업체조사), 개인사업자(국세청 국세통계),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이 유사하게 활용된다.

통계 조사 기관별 자영업 분류

구분	기관	조사	세부 내용	제주지역 내 규모
자영업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비임금근로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고용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10.4만명
개인사업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조직형태별 사업체 중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유·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9.9만개
개인사업자	국세청	국세통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합계	14.0만명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3년 평균매출액이 10억원(숙박·음식)~120억원 이하인 기업	6.7만개

주 : 1) 자영업자는 2024년 기준,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자는 2023년 기준, 소상공인은 2022년 기준
자료: 각 기관

II. 최근 자영업자 경영상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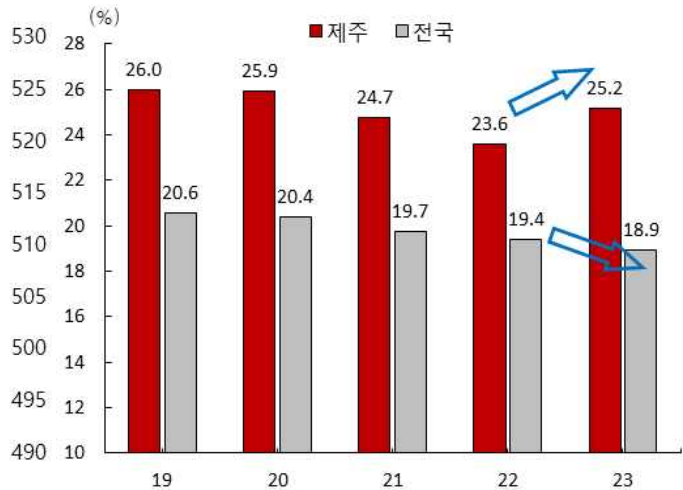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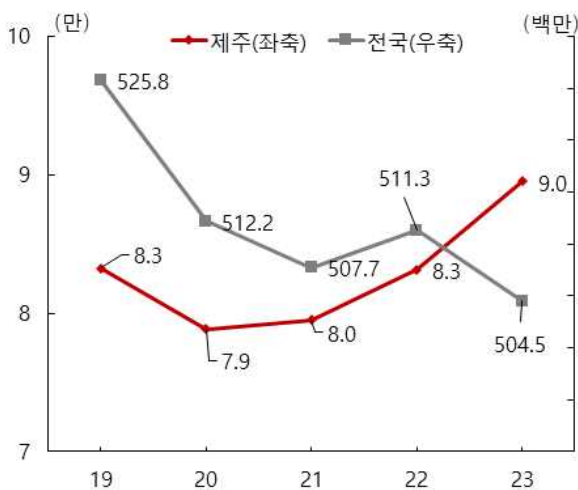
1 자영업자 개황

2-1. 제주지역 자영업자 수³⁾는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 감소세를 보인 전국(-4.0%)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2%(2023년 기준)로 2019년(26.0%) 대비 0.8%p 감소하였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⁴⁾

자영업자 수가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국과 달리 취업자수 비중이 최근 상승

그림 2-1. 자영업자 수 추이¹⁾

그림 2-2.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¹⁾



주 : 1) 매년도 하반기(10월) 기준, 농림어업 제외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2. 업종별로 보면 제주에서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 관광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27.3%)⁵⁾, 개인서비스(9.7%), 예술 및 여가(3.7%) 업종의 비중은 각각 전국(16.0%, 8.8%, 3.0%)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업과 제조업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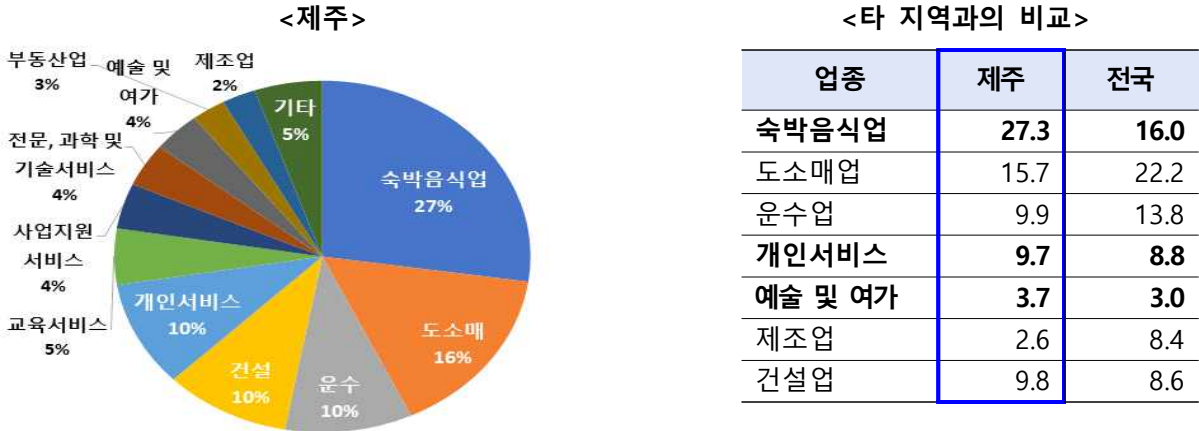
3) 반기별로 발표(4월, 10월)되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할 경우, 경기상황과 연관성이 적고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농림어업은 제외하였다.

4) 2024년(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준)은 자영업자 비중이 소폭 감소(-0.1%p) 하였으나, 타 지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 음식숙박업(27.3%)의 비중을 각각 나누어 보면 음식업은 20.3%, 숙박업은 7.0%로 나타났다.

타 지역 대비 관광업 관련 자영업자 비중이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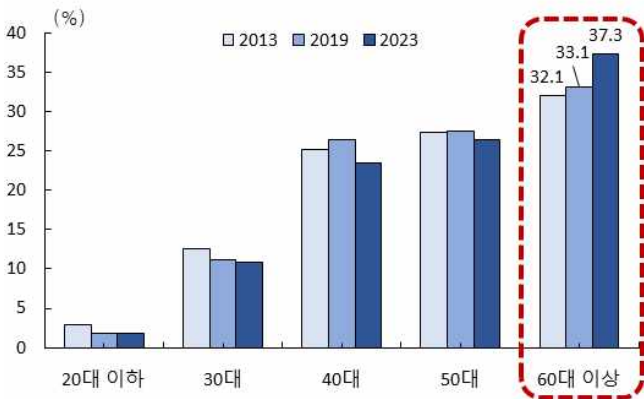
그림 2-3. 자영업자 업종 구성



2-3. 연령별로 보면 40~50대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팬데믹 이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확대된 점이 특징적이다. 2023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19년에 비해 4.2%p 확대(2019년 33.1% → 2023년 37.3%)된 반면, 그 외 연령층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지역 인구 고령화(2019년 21.2% → 2023년 25.1%, +3.9%p)와 3~40대 인구 순유입 둔화⁶⁾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인구에 비해 고령층 비중이 높고 고령화 속도도 빠른 상황이다.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이 최근 확대

그림 2-4.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2-5. 고령층(60대 이상)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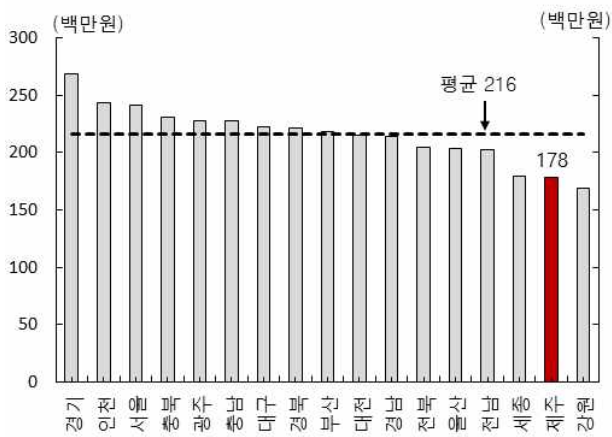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6) 제주지역 30~40대 순유입 규모는 2019년 14,953명에서 2023년 932명으로 감소했다. 2024년(1~11월 기준)에는 1,239명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전출입 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 내외로 조사된 바 있다.

2-4. 1인당 매출액 규모를 보면 전국에서 낮은 수준이며, 영세 사업체 비중도 높은 편이다. 제주 소상공인 사업체 평균 매출액(2022년 기준)은 1억 7,800만원으로 17개 시도 평균 대비 74.2% 수준이었으며 강원 다음으로 낮았다. 아울러 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체 비중도 40.1%로 17개 시도 평균(36.3%) 수준을 상회하였다. 동 수치는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로 2023~2024년중 서비스업 생산 등 자영업 업황이 타 지역보다 부진했음을 감안하면 영세한 상황이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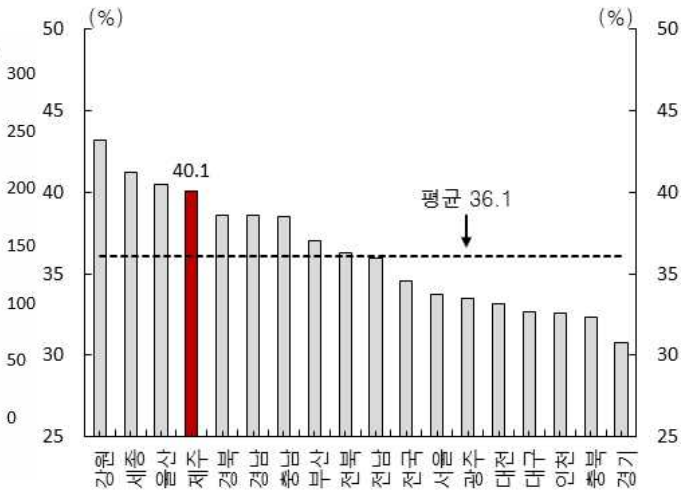
타 지역 대비 매출 수준이 낮고 영세 사업체 비중도 큰 편

그림 2-6. 소상공인 사업체 평균 매출액



주 : 1) 2022년 기준
 자료 : 소상공인 실태조사(2022)

그림 2-7. 영세 사업체¹⁾수 비중



주 : 1) 매출 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체 수
 2) 2022년 기준
 자료 : 소상공인 실태조사(2022)

2 최근 자영업 동향 및 경영상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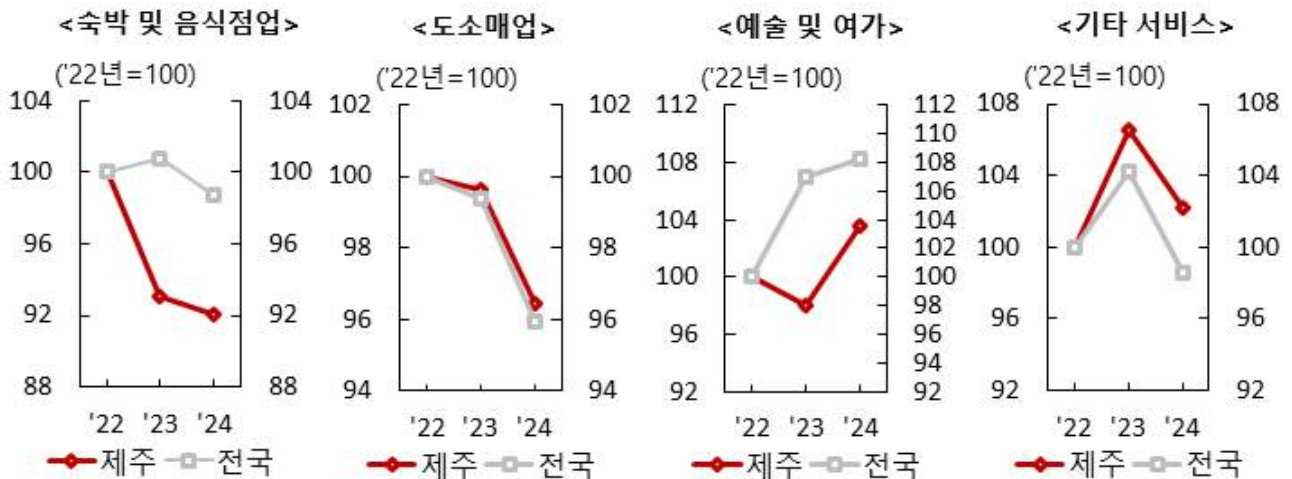
◆ 제주지역 자영업은 2023년 이후 서비스업 경기 부진 영향으로 매출·이익 감소, 부채부담 증대, 폐업률 상승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경영여건 악화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① 업황

2-5. 자영업 경기와 밀접한 생활·문화 관련 서비스업 업황이 2023년 이후 위축·정체되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부진한 편이었다. 최근 2년간(22년 대비 24년) 서비스업 생산을 보면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이 8.0% 감소하면서 가장 부진하였고, 도소매도 3.6% 감소하였다.⁷⁾ 예술·여가 서비스와 기타 개인서비스는 각각 3.6%, 2.2% 증가하여 소폭 상승에 그쳤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보면 숙박·음식점, 예술·여가는 전국보다 부진하였으며, 도소매는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23년 이후 자영업 관련 서비스업 업황이 타 지역에 비해 부진

그림 2-8.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¹⁾



주 : 1) 불변 기준, 2024년은 1~3분기 평균
자료 : 통계청

7) 소매업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큰 매장의 경우 더 부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24년중 제주지역 소매판매액(22.3/4분기 대비 24.3/4분기 증가율)을 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는 2.3% 증가하였으나,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은 4.5% 감소하였고, 특히 전문소매점이 10.8% 감소하였다.

② 자영업자 매출 및 이익⁸⁾

2-6. 최근의 자영업 업황 부진 영향으로 자영업자 매출 및 이익 감소폭 역시 타 지역 대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평균 매출은 2023년에 7.2% 낮아져 전국(-4.5%)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2024년 자료는 공표 전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⁹⁾ 등을 감안할 때 감소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평균 이익도 2023년에 7.1% 줄어, 전국(-4.8%)보다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영향이 컸던 2020년과 비교하면 2023년 매출 및 이익이 각각 5.6%, 2.6% 감소하였다.

2-7. 전반적인 자영업자 실적 악화와 함께 매출분포가 양극화되는 등 업체별로 경영성과가 차별화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매출분포(소상공인실태조사)를 보면 중간 구간(0.5~2억원 미만) 비중은 2019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저매출 구간(0.5억원 미만), 고매출 구간(2억원 이상)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는 관광객 소비 트렌드 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온라인 쇼핑, 플랫폼 주문, SNS 홍보 확대 등) 등 자영업 환경변화에 따라 경영성과가 양극화되는 상황을 보여준다.¹¹⁾ 제주지역에서 2023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소비 비중이 확대되고 지출항목 및 소비지역이 다변화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¹²⁾ 등에 따라서도 경영 실적이 차별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매출 및 이익 감소폭이 타 지역보다 크고, 업체간 매출 차별화가 진행

그림 2-9. 개인사업자¹⁾ 평균 매출(수입금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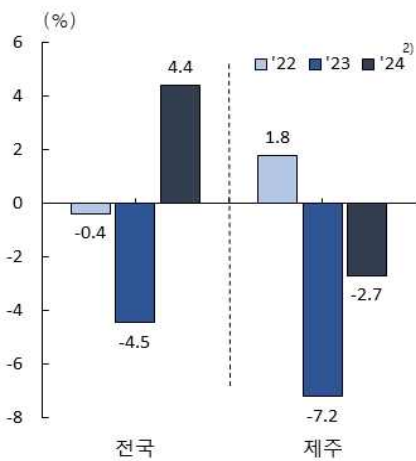


그림 2-10. 개인사업자¹⁾ 평균 이익(소득금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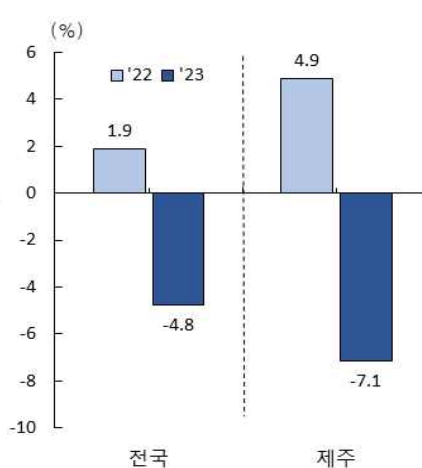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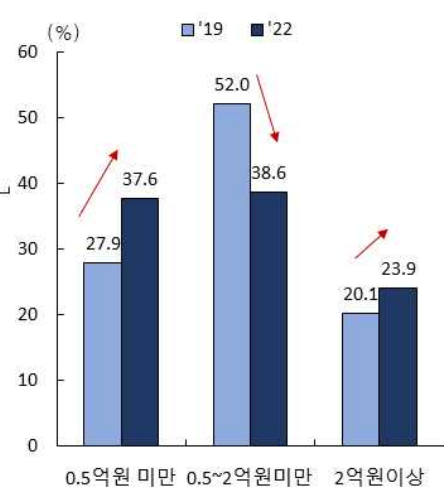


그림 2-11.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구간별 분포



자료 : 소상공인 실태조사(2022)

주 : 1) 부동산임대업 제외

2) '24년은 주요 3사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로 연장

자료 : 국세통계, 한국은행

8) 국세통계의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고, 평균 매출액과 이익은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사업소득 신고건수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간이·면세 사업자의 합을 계산하였다.

9) 자영업자 내 비중이 높은 숙박업, 음식점업, 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업, 기타 서비스업 사용을 분석하였다.

10)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4.12월)에서도 2024년 매출액이 2023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이 79.3%로 조사된 바 있다.

11) 조장희 등(2023, 한국은행 제주본부 공동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사업체는 미활용 업체에 비해 매출액, 노동생산성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효과는 산업, 사업주 연령, 근로자 규모 등에 따라 이질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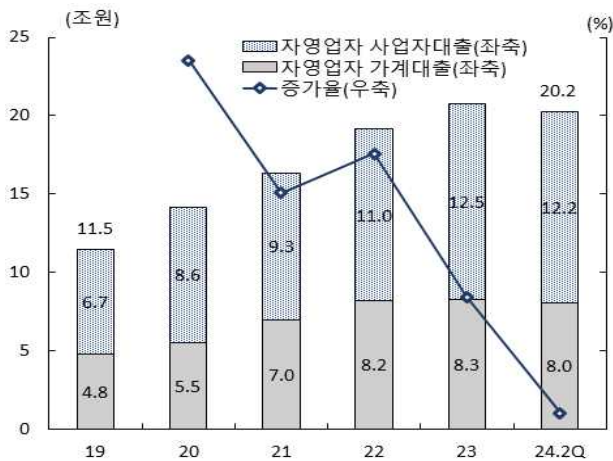
12) 지역 경제 모니터링 결과 최근 해외 SNS 홍보, 해외 간편결제 도입 등으로 외국인 매출이 확대된 사례가 늘었다.

③ 부채

2-8. 제주지역 자영업자 부채¹³⁾는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 최근 둔화되고 있으나 신규차주 증가세가 여전히 타 지역보다 높은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4년 2/4분기 20.2조원으로 2019년말(11.5조원) 대비 8.8조원(+76.5%) 증가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2022년까지는 자영업자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2023년 이후에는 가계대출이 소폭 감소(22년말 8.2조원 → 24.2/4분기말 8.0조원)한 데 비해, 사업자대출은 업황 악화에 따른 자금 조달 등으로 증가(11.0조원 → 12.2조원)하였다. 다만 사업자대출도 2024년 들어서는 정책지원자금 회수, 금융기관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타 지역과 비교하면 2020~22년중에는 제주지역 증가세(67.2%)가 도지역 평균(55.8%)을 11.4%p 상회하였으며, 2023년 이후에도 제주가 증가율이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동 기간 중 제주지역의 높은 대출 증가율은 신규 차주 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타 지역 대비 높은 차주 수 증가율이 2023년 이후(제주 15.3%, 도지역 2.6%)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제주지역의 경우 자영업 경기상황 악화로 운영자금을 위한 소액대출을 중심으로 신규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인당 평균대출은 2019년 약 3.5억원(사업자대출 2.1억, 가계대출 1.48억)에서 2024.2/4분기에는 3.0억원(사업자대출 1.8억, 가계대출 1.2억)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8개도 중에서는 경기도(약 3.7억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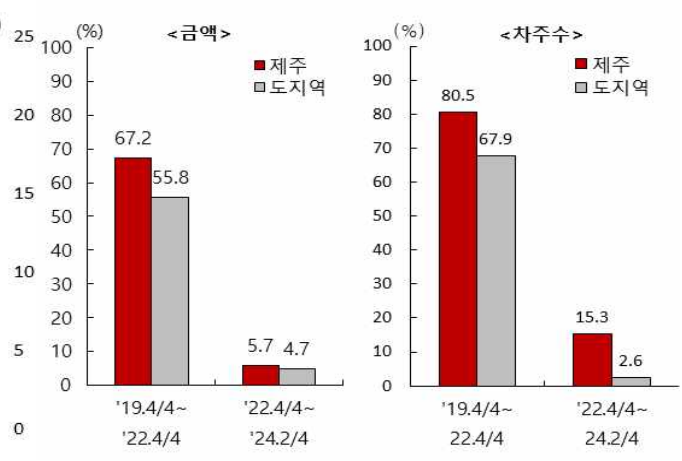
자영업 부채는 신규차주 증가로 팬데믹 기간 중 빠르게 증가

그림 2-12. 자영업자 대출 추이¹⁾



주 : 1) 24.2/4분기 증가율은 23.2/4분기 대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그림 2-13. 자영업자 대출 및 차주수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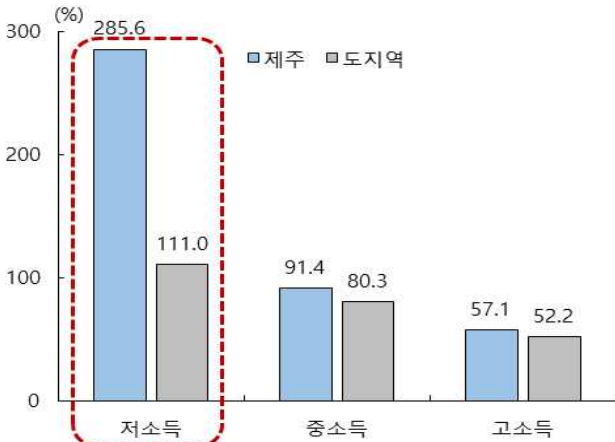
주 : 1) '19.4/4 대비 '24.2/4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13) 본 고에서는 한국은행 가계부채DB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해 '자영업자 부채'로 추정하였다.

2-9. 소득수준별¹⁴⁾로 보면 팬데믹 이후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하면서 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부채(2024.2/4분기 기준)는 2019년말 대비 285.6% 증가하면서 도지역 평균(111.0%)보다 큰 폭 증가하였다. 전체 부채금액 중 저소득층 비중을 보면 12.7%(2024.2/4분기 기준)로 2019년말(5.8%) 대비 6.9%p 증가하면서, 동기간 중 중소득(1.5%p), 고소득(△8.4%p) 증가폭을 상회하였다. 또한 전체 차주 수 중 저소득층 비중 증가폭(6.5%p) 역시 중소득(△1.2%p), 고소득(△5.3%p) 대비 큰 폭 증가하였다. 특히 2024.상반기중에는 차주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어 소폭(1.1%)에 그친 가운데, 차주별 비중이 저소득층은 확대(+0.4%p)된 반면, 중소득층(△0.3%p)·고소득층(△0.1%p)은 축소되었다. 이는 2024년중 저소득층 차주 증가는 저소득 자영업자 신규 차입보다는 중소득 이상 차주들이 소득 저하로 저소득층으로 하락한 데 기인했음을 시사한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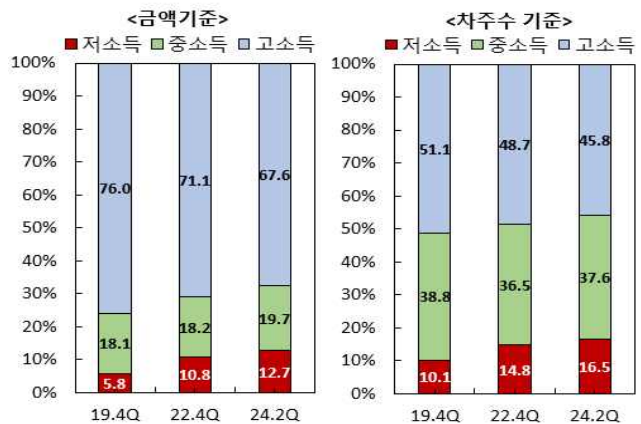
저소득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하며 부채의 질 악화

그림 2-14.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¹⁾



주 : '19.4/4분기 대비 '24.2/4분기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그림 2-15.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부채 비중



14) 가계부채DB 상 전체 차주 중 소득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차주를 각각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분류하였다.
 15) 전국 기준으로도 최근의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 증가가 이들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 사업자대출 공급 확대가 아니라 기존 자영업 차주들의 전반적인 소득 및 신용도 저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1] 최근 자영업자 대출의 차주 특성 및 연체율 분석(2024.12월)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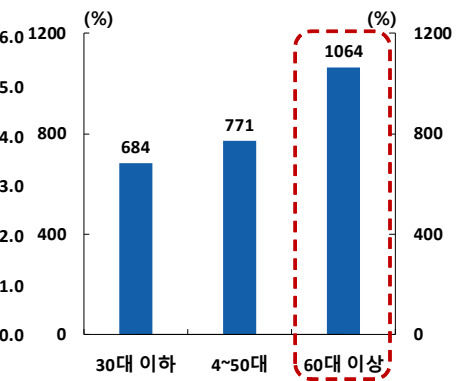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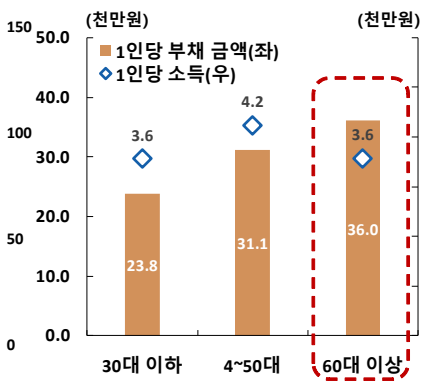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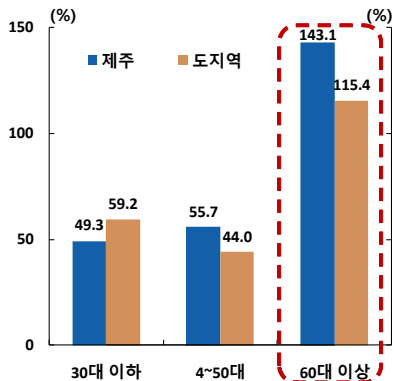
2-10.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 증가율이 높았고, 소득 대비 채무부담도 타 연령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60대 이상 고령층 부채(2024.2/4분기 기준)가 2019년말 대비 145.1% 늘어 타 연령대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¹⁶⁾ 이에 따라 고령층 부채비중도 동기간중 24.8%에서 34.1%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고령층 자영업자 부채 증가는 차주수 증가(+266.7%)에 따른 것으로 고령층의 경우 동 기간중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데다 저소득층 비중이 높아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신규자금 수요가 확대되었다. 제주지역 고령층은 타 연령층 대비 1인당 소득은 낮으나 대출금액은 많아 소득 대비 채무부담이 높은 편이다. 2024.2/4분기 기준 고령층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Loan to Income Ratio)은 1,064%로 청년층, 중장년층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자영업 경기 회복 지연시 자금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¹⁷⁾

60대 이상 고령층의 부채 증가폭이 큰 가운데, 소득 대비 채무부담이 타 연령보다 높은 편

그림 2-16. 연령별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¹⁾

그림 2-17. 연령별 자영업자 부채 및 소득¹⁾

그림 2-18. 연령별 자영업자 LTI¹⁾



주 : 1) 19년말 대비 24.6월말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주 : 1) 대출보유차주 기준(24.6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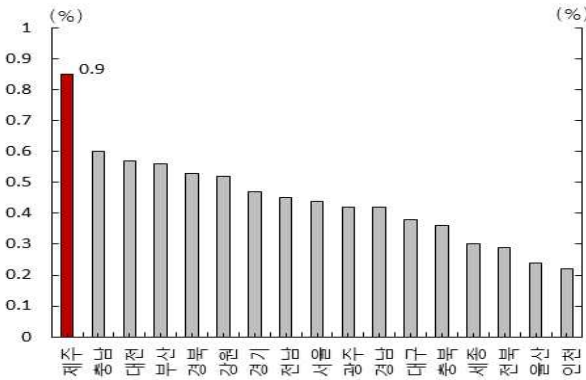
주 : 1) 소득 대비 대출 비율(24.6월말)

2-11.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그간의 고금리와 자영업자 매출감소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연체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주지역 자영업자 연체율(5대 은행 기준)은 2023년말 0.61%를 기록한 뒤 2024년 6월 0.85%로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17개 시·도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 약화는 소상공인 대출시 보증 역할을 신용보증기관의 순보증사고율 및 순대위변제율¹⁸⁾ 상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이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이 큰 폭 상승하였으며, 2024년말 기준 제주지역 보증사고율은 7.6%로 17개 시도(평균 6.0%) 중 인천(7.9%) 다음으로 높았다.

16) 자영업 업황이 부진했던 2023년 이후 고령층 부채 증가율(2022년말 대비 2024.2/4분기)은 16.1%로 이전보다 둔화되었으나 타 연령층 증가율(30대 이하 3.6%, 4~50대 0.6%)보다 높았고, 타지역 고령층 증가율(11.0%)도 상회하였다.
 17) 고령층 자영업자의 경우 자산규모도 타 연령층에 비해 클 것으로 보이나, 상가·토지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금융자산 비중은 낮아 경영상황 악화 지속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
 18) 순보증사고율이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기한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비율을 의미한다. 순대위변제율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금액이 보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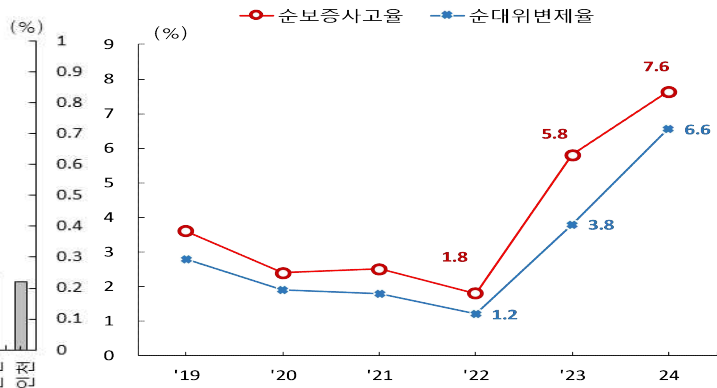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연체율과 신용보증기관 사고율이 상승

그림 2-19. 자영업자 연체율¹⁾²⁾



주 : 1) 24년 6월 기준 2) 5대 시중은행 기준
 자료 : 각 사

그림 2-20. 순보증사고율¹⁾ 및 순대위변제율²⁾ 추이



주 : 1) 순사고율 = 기간중 사고순증액/기간말보증잔액
 2) 순대위변제율 = 기간중 대위변제순증액/기간말보증잔액
 자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④ 폐업

2-12. 자영업 폐업률도 매출 감소, 채무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3년중 다른 지역보다 큰 폭 상승하였다. 제주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국보다 낮은 가운데¹⁹⁾,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3년 상승 전환하였다. 2023년 제주지역 폐업률(9.9%)은 전국(10.5%)보다는 소폭 낮은 상황이나 증가폭이 1.8%p로 여타 8개도 평균 대비 높았다. 업종별로 폐업률 상승폭을 보면 음식점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이 각각 3.1%p, 4.4%p, 4.2%p로 여타 업종보다 높았다. 2023년 폐업률은 팬데믹 영향이 컸던 2020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3년중 폐업률이 소매,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타 지역보다 크게 상승

그림 2-21. 개인사업자 폐업률 추이(~'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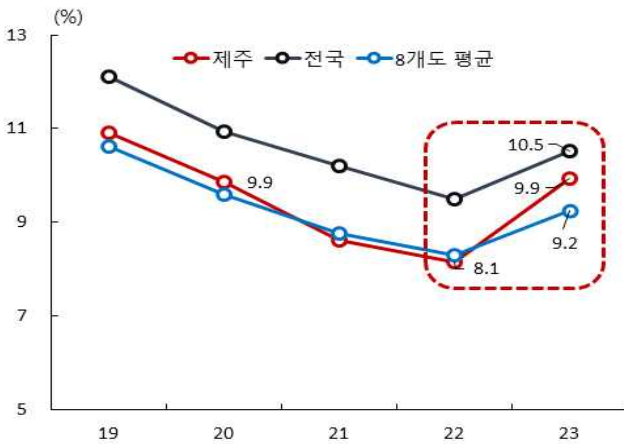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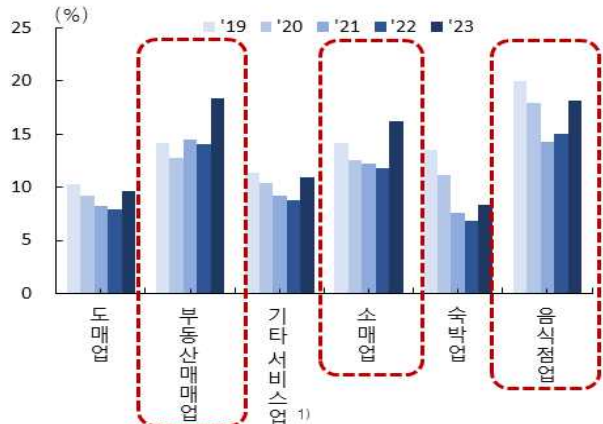


그림 2-22. 업종별 폐업률 추이(~'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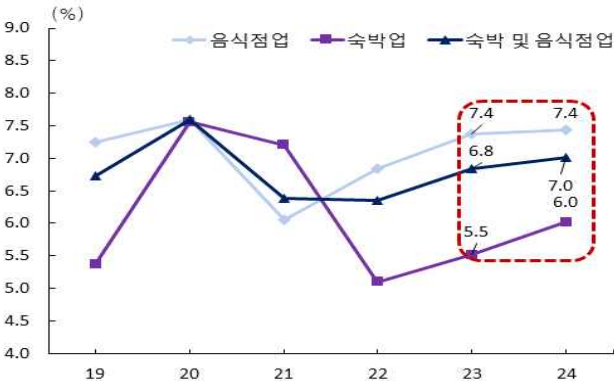
주 : 1) 본 그래프에서 기타 서비스업은 문화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포함
 자료 : 국세통계

2-13. 2024년 들어 제주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행정안전부 인허가통계를 이용해 분석²⁰⁾한 결과 숙박, 음식점 등 주요 업종에서 전년 대비 폐업건수가 늘고 폐업률도 높아졌다. 2024년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폐업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13.7%, 1.6% 증가하였고, 폐업률도 0.5%p, 0.1%p 상승하였다. 이러한 최근 제주지역 폐업 상황은 폐업공제금 수령건수²¹⁾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3년(제주 31.4%, 전국 20.7%)에 이어 2024년(제주 10.6%, 전국 0.0%)에도 타 지역보다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19) 2022년까지 제주지역 폐업률 추이를 보면 도 지역과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만 전국과 비교하면 1%p 가량 낮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도지역의 경우 고령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자영업(소매업, 음식·숙박 등) 종사 비중이 높는데, 이들 사업주는 폐업 후 재취업, 재창업 등에 한계가 있어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 2024년 국세통계가 공표전 이므로 2024년 폐업률은 매월 발표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업종(예시. 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별로 파악하였다. 다만 동 자료는 국세통계의 폐업률 데이터와 포함 범위, 폐업 기준, 시점 등에 차이가 있어 두 계열 간 직접적인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세한 설명은 [참고 2] 참조)
 21) 자영업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액에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목돈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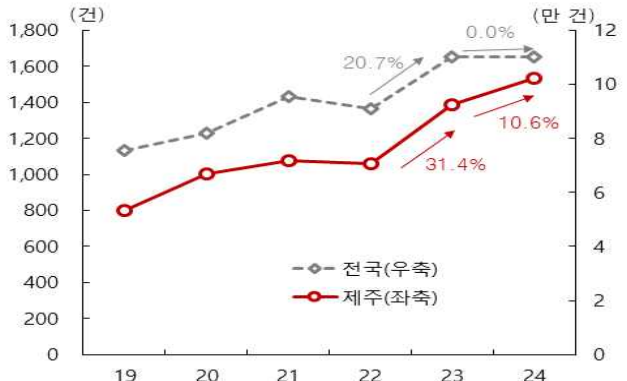
2024년에도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폐업률 상승세 지속

그림 2-23. 2024년중 숙박 및 음식점업 폐업률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행정통계

그림 2-24.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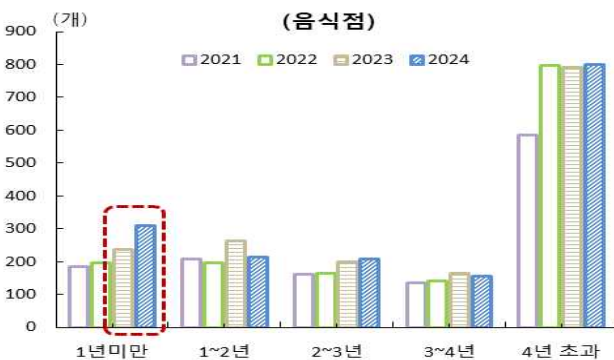


주 : 1) 소규모(2층이하 및 330m²이하) 상가 기준
 자료 : 노란우산공제회

2-14. 영업기간별로 보면 음식점에서는 신생업체가, 숙박업에서는 업력이 긴 업체에서 폐업체수 증가폭이 컸다. 제주지역에서는 2023~24년 중 영업기간 1년 미만의 음식점 폐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생업체는 부정적 외부 충격에 따른 매출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정비를 상쇄할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위기 및 위험 관리 경험이 부족하여 외부 충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²²⁾ 업력이 짧은 자영업체 폐업점수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자금 용도의 부채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숙박업체의 경우 음식점과 달리 2024년 들어 ‘영업기간 4년 초과’ 업체의 폐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숙박업의 특성상 고객들의 수요가 ‘시설 노후화’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²³⁾ 최근 들어 노후화된 숙박시설이 많은 원도심 지역보다는 비교적 신축 숙박시설이 많은 신제주 지역으로 관광수요가 집중된다는 현상도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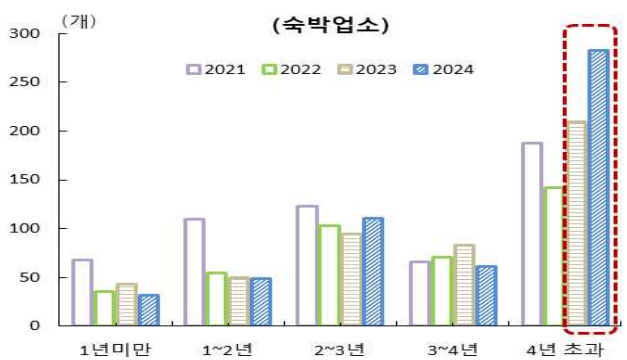
최근 음식점업은 신생업체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하였고, 숙박업은 4년 초과 업체 폐업이 증가

그림 2-25. 영업기간별 폐업 음식점 수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행정통계

그림 2-26. 영업기간별 폐업 숙박업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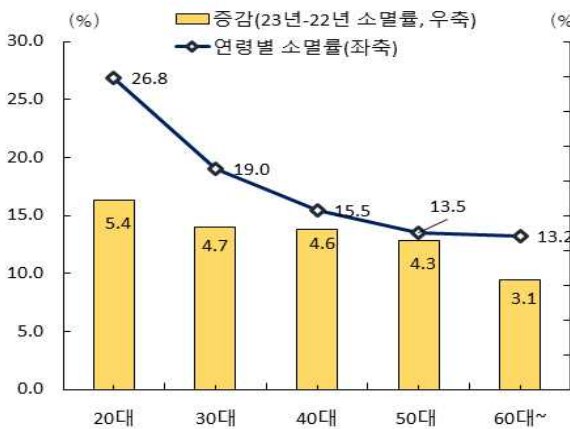
22) 남윤미(2017)에 따르면 업력이 1년 더 긴 업체일수록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폐업 위험도가 각각 5.0%, 6.1%,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음식점의 경우 이른바 ‘노포’ 업장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있는 반면에, 숙박업소의 경우 고객들은 대부분 노후화가 되지 않은 시설을 선호한다.

2-15.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사업체 신생(창업)과 소멸(폐업)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 20, 30대가 대표자인 사업체의 소멸률은 각각 26.8%, 19.0%로 타 연령층보다 크게 높았으며, 신생률 역시 유사한 모습이다. 청년 사업체의 시장 진출과 퇴출이 활발한 것이 그만큼 역동성이 높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들 연령층의 창업이 충분한 준비나 자금 지원 없이 시작하여 경제적 성과가 미흡한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청년층의 자영업 시장 유입이 업계 전반의 활동성과 유연성이 높아지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도입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 편중시 높은 폐업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에는 자영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소멸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신생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청년층의 소멸률 상승폭이 타 연령층 대비 더 크다는 사실은 이들 연령층이 부정적 충격에 따른 매출 변동성에 더욱 취약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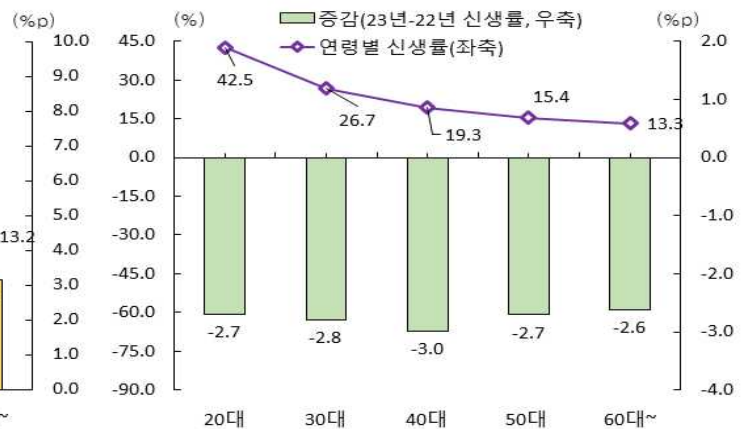
청년층 자영업자의 소멸률과 신생률이 타 연령층보다 높음

그림 2-27. 연령별 사업체 소멸률¹⁾



주 : 1) (23년중 소멸사업체)/(22년말 활동사업체)
자료 : 제주 사업체생멸등록통계

그림 2-28. 연령별 사업체 신생률²⁾



주 : 2) (23년중 신생사업체)/(22년말 활동사업체)
자료 : 제주 사업체생멸등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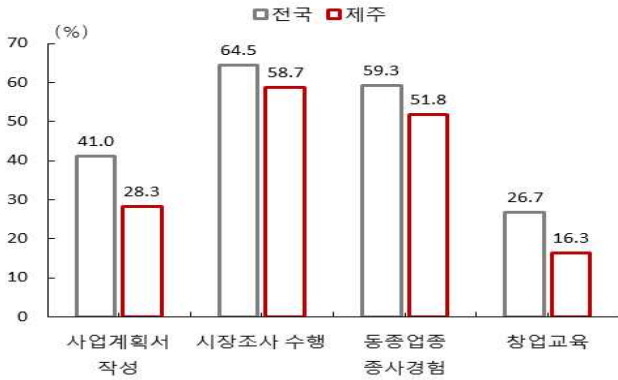
2-16. 최근 제주지역 폐업 증가는 경기적 요인 외에도 예비 자영업자의 창업 전 준비 활동 부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창업 준비활동 대부분 항목(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수행, 동종업종 종사경험, 창업교육 수강 등)에서 전국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창업 전 준비활동 뿐 아니라 창업경험 역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예비 창업자들은 직전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이거나 무직인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제주 예비 자영업자들의 자영업 종사 경험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준비 없는 성급한 창업이 증가할 경우 폐업률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4) 반면 창업준비기간은 10.5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 자영업자들이 성공적 창업을 위한 질적인 노력(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수행 등)보다는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활동(자본금, 대출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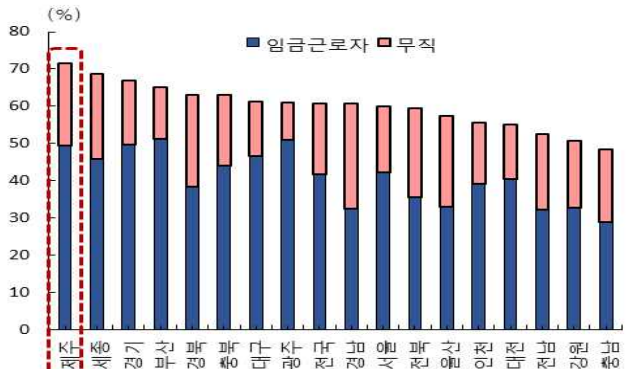
타 지역 대비 창업 경험 및 준비 활동이 미진

그림 2-29. 창업 준비활동 여부



자료 :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

그림 2-30. 창업¹⁾ 직전 종사상 지위



주 : 1) 숙박 및 음식점업

자료 :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

참고 2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개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자료(인허가일, 폐업일자 등)를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 개방'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자료 중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숙박업(숙박업, 관광숙박업, 일반야영장업, 농어촌민박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세청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2024년 폐업률을 추정하였다.

이 자료는 국세통계와 포함 범위, 정의, 시점, 신고 누락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계열 간 직접적인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각의 자료 내에서의 지표 흐름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분	국세통계 (국세청)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출처	국세청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신고 자료
폐업 기준	사업자가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사업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포함 대상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자)	특정 인허가 업종 (음식점, 숙박업 등)
시점	세무서에 신고된 시점	인허가 말소나 취소 시점
누락 가능성	폐업했지만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 가능	실제 영업 중단 후 인허가 취소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누락 가능

Ⅲ. 자영업 경영상황 악화 요인

1 도내 소비 회복세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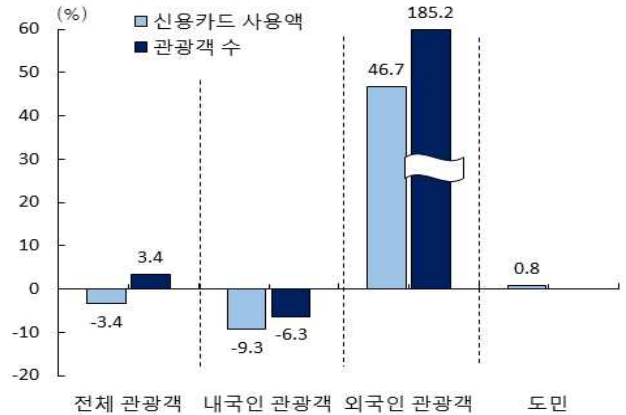
3-1. 최근 자영업 경영상황 악화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광객을 중심으로 도내 소비 회복세가 더딘 데 기인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관광객 소비가 비중이 높고 변동폭도 커서 도민 소비와 나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⁵⁾ 최근 제주 지역 내 관광객 소비는 2023년에 내국인 해외여행 재개로 제주관광 수요가 줄면서 큰 폭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관광객수가 증가하였으나 내국인을 중심으로 소비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2024.11월 이후 관광객 수가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부진 흐름이 심화될 가능성 있다. 한편 도민 소비는 관광객 소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소비자심리지수가 2023년 이후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개선 흐름이 미약한 상황이다.²⁶⁾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도내 소비 회복세가 더딘 상황

그림 3-1. 신용카드(신한) 사용액¹⁾ 증가율²⁾



그림 3-2. '24년중³⁾ 관광객 소비지출 증가율



주 : 1) 운수업 제외 주요 자영업종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1~10월 기준
 자료 :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3-2. 아울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구유입이 2023년 이후 순유출로 전환되고 전체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한 점이 도민 소비기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주도는 2010~2022년까지 인구순유입 지역이었으나, 2023~24년중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또한 인구유출과 더불어 2021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상회²⁷⁾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²⁸⁾ 40대 이하 청장년층 인구는 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높고 자녀세대인 미성년

25) 자영업 경기와 밀접한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2023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을 살펴보면, 도민이 50.7%, 관광객이 49.3%를 차지하였다.

26) 소비자 심리지수는 제주가 2022.12월 89.5, 전국이 90.2를 기록한 이후, 제주가 전국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

27) 제주지역 인구변동 중 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 규모는 2012년 2,754명이었으나 점차 둔화되어 2021년 자연감소(△501명)로 전환되었고, 자연감소 규모가 2023년 1,455명, 2024.1~10월중 1,410명으로 확대되었다.

층 인구변동을 동반하므로 이들 연령층의 인구유출은 단기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도내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023년 이후 소비성향이 높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인구가 순유출

그림 3-3. 연령별 순유입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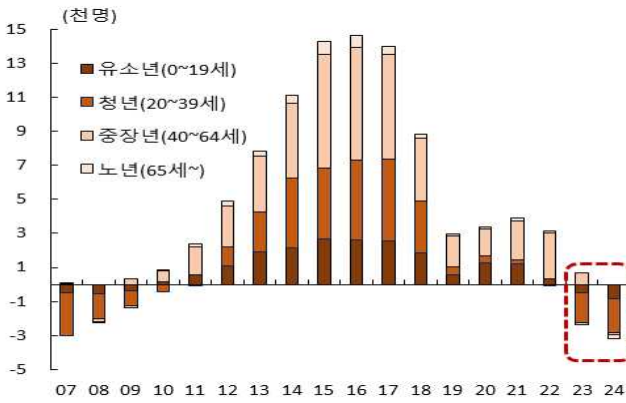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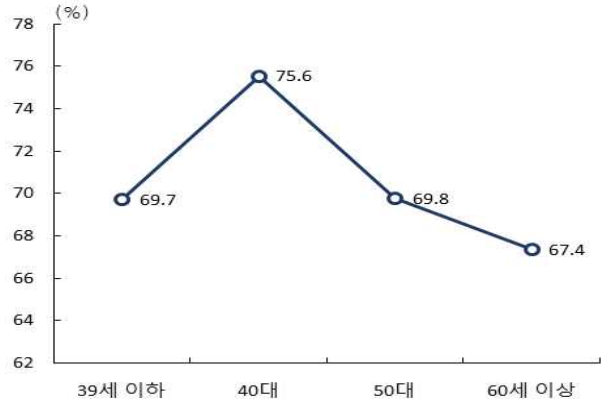


그림 3-4.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¹⁾²⁾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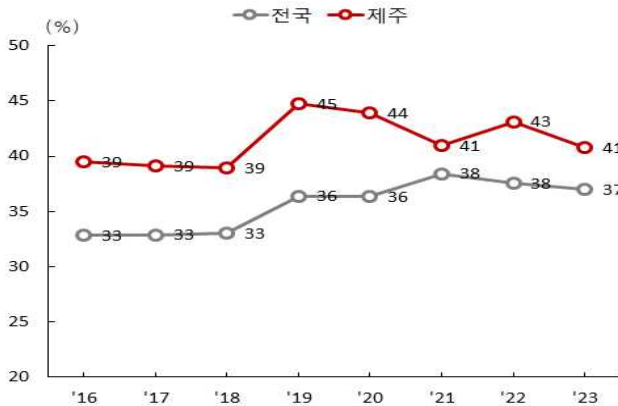
주 : 1)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가구주 연령기준)
2) 전국 기준(2024.3분기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참고 3 지역내 소비지연의 구조적 요인

제주지역은 주력산업 특성상 고용의 안정성이 낮아 소비 확대 여건이 취약하다. 제주 비정규직²⁹⁾ 비중은 2023년 39.0%로 전국 평균(38.2%)을 상회하고 있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 또한 관광객 수요는 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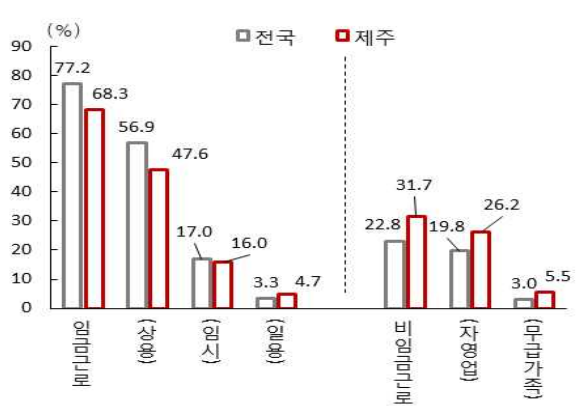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 비중이 높음

그림 3-5. 비정규직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6.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비중¹⁾



주 : 1) '24년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8)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통계공표 이래 처음으로 2023년에 감소(△2,907명)하였고, 2024년에도 4,884명 줄어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2

운영비용 상승

3-4. 최근 자영업자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거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운영비용은 상승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주요 자영업종의 이익률³⁰⁾ 추이를 보면 2021~22년에는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개선되었으나 2023년에는 하락하였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이익률이 2023년 13.7%로 전년(14.0%) 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기타 서비스업은 2023년 22.9%로 전년대비 0.7%p 하락하였다. 실제 비제조업 기업경기조사 지수(BSI)에서도 채산성 관련 응답이 2023년 초 하락한 뒤,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익률 및 채산성이 악화

그림 3-7. 자영업 이익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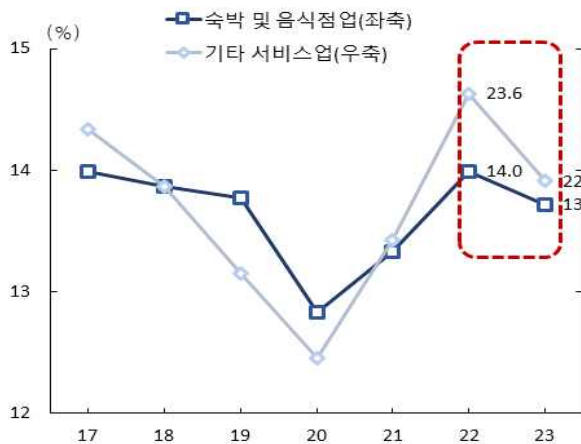


그림 3-8. 채산성 BSI 추이



주 : 1)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
자료 : 국세통계

자료 : 한국은행

3-5. 이러한 최근의 자영업자 수익성 악화는 2023년 이후 소비 수요가 부진하면서 판매가격 인상은 제한적인 반면, 재료비 등 비용상승압력은 지속된 데 기인한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점업³¹⁾과 숙박업 모두 주요 원자재나 운영비용(공급자물가 기준³²⁾) 오름세가 판매가격(소비자물가 기준)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의 경우 외식비 소비자물가는 2023~24년중 전국(10.3%)보다 낮은 7.8% 상승한 반면, 주요 원자재인 도축육, 과채류, 커피 가격은 동 기간 중 각각 11.1%, 42.7%, 187.6% 상승하였다. 숙박업은 숙박서비스물가(CPI)가 10.5% 상승한 데 반해, 세탁과 전력 등 운영비 가격이 각각 15.9, 39.0% 상승하였다.

29) 임시·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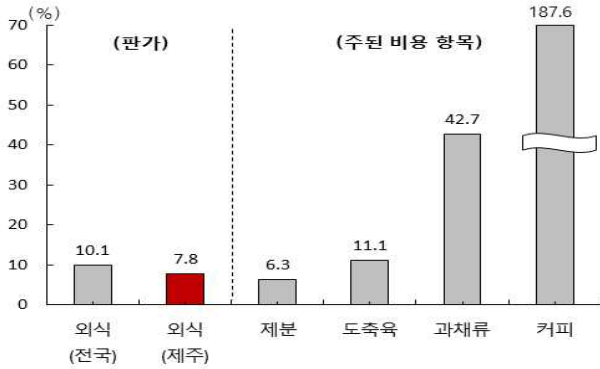
30) 국세통계의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 총수입금액은 매출액에 소득금액은 순이익에 대응된다고 가정하고 이익률을 계산하였다.

31) 제주관광협회의 실태조사 결과(2024.12월)에 따르면, 도내 외식업체(87개소) 판매가격중 재료비 비중은 40% 내외(돼지고깃집 40.3%, 횡집 34.1%, 향토음식점 36.3%, 기타음식점 39.1%), 인건비는 20% 내외(돼지고깃집 21.7%, 횡집 22.7%, 향토음식점 19.0%, 기타음식점 2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32) 공급자물가(PPi)는 지역별로 제공하지 않아 전국 수치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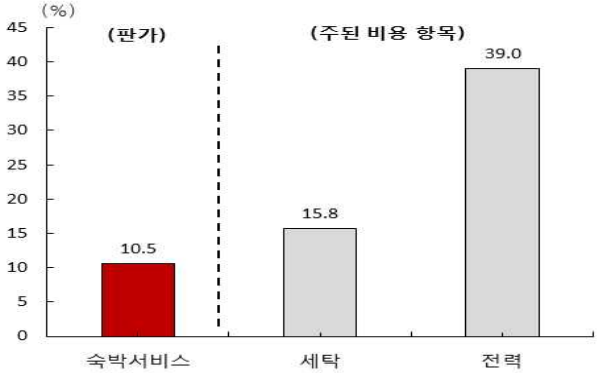
최근 판매가격에 비해 재료비, 운영비 등의 비용 상승세가 큰 모습

그림 3-9. 외식비 및 주요 비용¹⁾²⁾



주: 1) 22년말 대비 24.9월 기준 상승률(판가는 10월 기준)
 2) 커피는 수입물가지수(전국), 그 외는 PPI(전국)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3-10. 숙박서비스 판가 및 주요 비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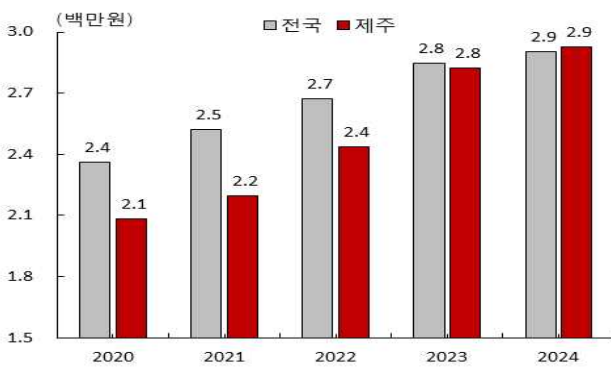


주: 1) 22년말 대비 24.9월 기준 상승률(판가는 10월 기준)
 2) 숙박서비스는 CPI(제주), 그 외는 PPI(전국) 기준
 자료: 통계청

3-6. 아울러 인건비 상승세 지속과 그간의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등도 재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의 주요 서비스업종 인건비는 팬데믹 이후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 하락으로 인력부족이 심화³³⁾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2023년 이후에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제주지역 숙박·음식점 임금은 2022년 대비 2024년 상승률이 20.1%로 전국(8.7%)을 상회하였다. 아울러 사업체 운영 관련 부채(제주 71.9백만원, 전국 67.7백만원)도 타 지역보다 높아 관련 이자 부담도 큰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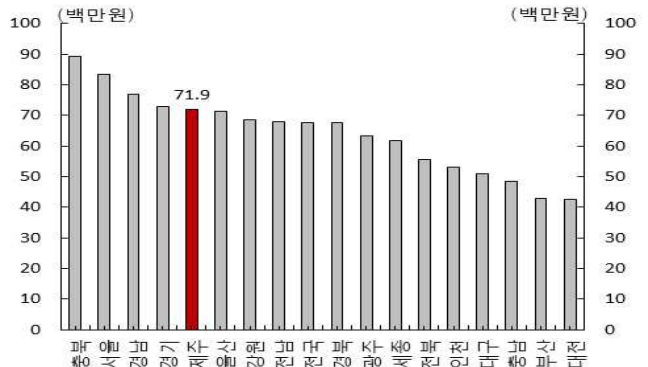
최근 임금 상승세가 타 지역보다 빠르고, 이자비용 부담도 큰 상황

그림 3-11.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¹⁾ 추이



주: 1) 상용월급여액 기준
 자료: 고용노동통계, 통계청

그림 3-12. 소상공인 부채액¹⁾²⁾



주: 1) 부채가 있는 사업체당 부채액
 2) 사업체 운영 관련 부채
 자료: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2022)

33) 권역별 인력 부족 업체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제주권은 2023년 41.7%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전국 7개 권역(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 중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기록하였다.(송상윤, 김동준, 배한이(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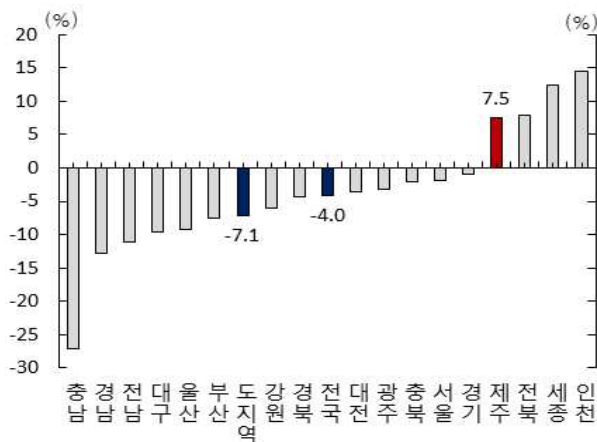
3

과당경쟁 지속

3-7. 최근 자영업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증가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과당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팬데믹 이전 대비 자영업자 증가율(2019년말 대비 2023년)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제주는 7.5%로 전국(-4.0%)과 도지역 평균(-7.1%)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8개 도지역 중에서는 전북(7.8%)에 이어 2번째로 높고, 17개 시도중에서는 4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 밀집도가 관광객 체류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서 업체당 매출액·이익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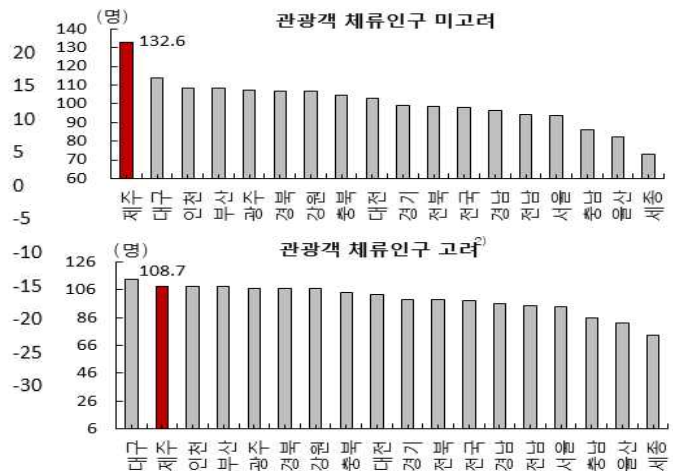
팬데믹 이후 타 지역보다 자영업자 증가폭이 커서 자영업 밀집도가 높은 수준 지속

그림 3-13. 업종별 자영업자¹⁾ 증가율²⁾



주 : 1) 23년 농림어업 제외 자영업자의 업종별 비중
 2) '19년 대비 '23년 증가율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3-14. 자영업 밀집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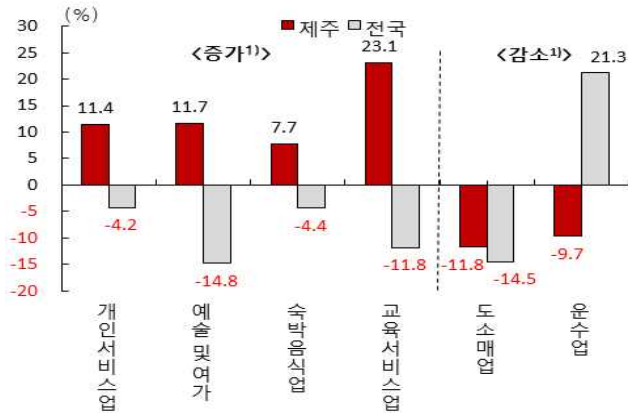
주 : 1) 인구 천명당 자영업자 수(2023년)
 2) 일일 관광객 체류인구=(연 방문 관광객) x (체류일수)/365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3-8. 세부업종별로 보면 개인서비스, 여가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 등에서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기 업종에서 전국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편 도소매업 종사 자영업자 수는 온라인 소비 확대 등 구조적인 제약으로 제주와 전국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운수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물류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³⁴⁾한 것과 달리, 제주는 팬데믹 시기 단체관광객 축소(미니·전세버스) 등으로 큰 폭 감소한 이후 회복세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 밀집도도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숙박업, 여가서비스업 등에서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4)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택배·배달, 화물운송·보관·창고 등의 일자리에 1인 자영업자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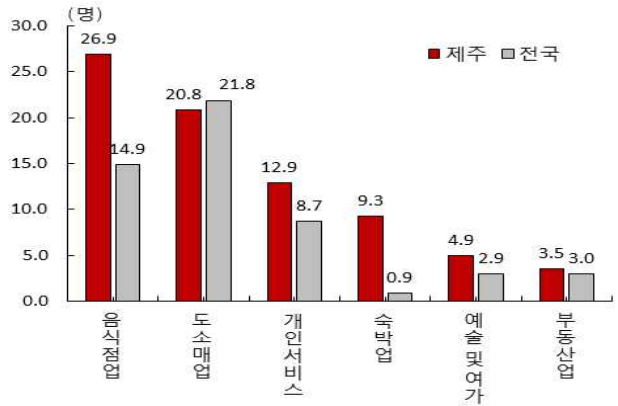
개인서비스, 예술·여가,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과당경쟁 지속

그림 3-15. 업종별 자영업자 수 증가율¹⁾



주 : 1) '19년 대비 '23년 증가율(농림어업 제외)
자료 : 통계청

그림 3-16. 업종별 밀집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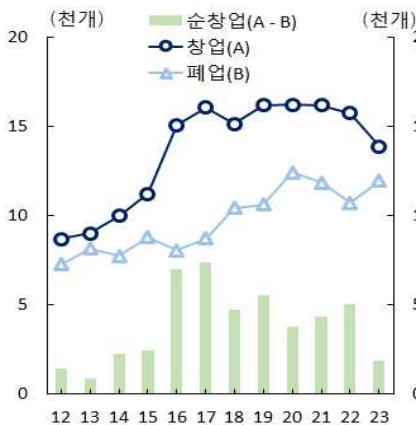


주 : 1) 인구 천명당 자영업자 수(2023년)
자료 : 통계청

3-9. 제주지역 자영업 과당경쟁 문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이 폐업보다 많은 상황이 꾸준히 지속된 데 기인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2012년 이후로 창업/폐업비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경쟁 정도가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다. 2023년 폐업이 큰 폭 증가하면서 창업/폐업비가 낮아졌으나, 동 기간중 제주지역 소비감소·인구 유출 등이 심화된 점을 감안하면 체감적인 경쟁 강도는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³⁵⁾ 업종별로 보면 숙박업은 2021~22년 중 창업/폐업비가 상당폭 상승하면서 경쟁 강도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매매업 역시 타 업종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음식점업은 타 업종 대비 낮은 가운데 2022년 이후 둔화되었다. 다만 2023년에는 대부분 업종에서 폐업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창업/폐업비가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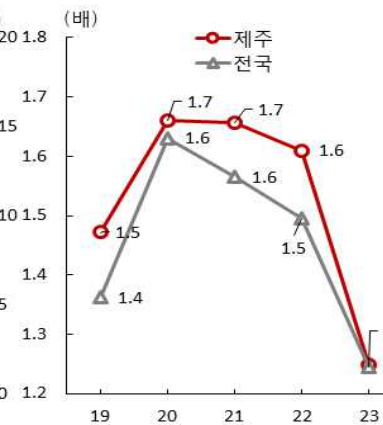
폐업 대비 창업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간 경쟁 강도가 심화

그림 3-17. 창업 및 폐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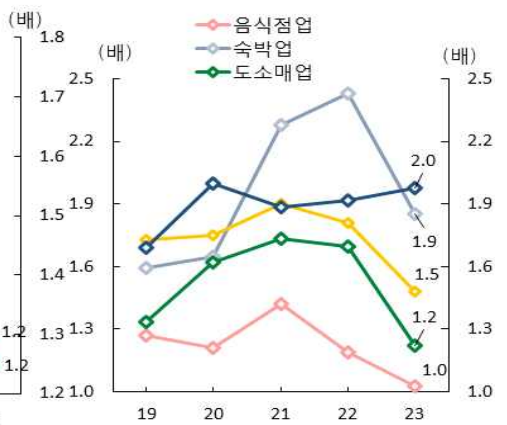
주 : 1) 개인사업체 기준
자료 : 통계청(기업생멸통계)

그림 3-18. 자영업 창업/폐업비 추이



자료 : 국세통계

그림 3-19. 업종별 창업/폐업비 추이



주 : 1) 기타 서비스업은 문화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을 포함
자료 : 국세통계

35) 중소기업 중앙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에서 2024년 경영애로 사항(복수응답) 중 ‘동일업종내 경쟁심화’ 응답이 4.5%로 낮은 편이나, 제주지역 소상공인 조사에서는 2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V. 자영업 부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4-1. 제주지역 자영업 부진은 해당 산업의 생산 감소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축 및 건설경기 둔화, ②자영업자 매출 감소에 따른 임금근로자 고용 부진, ③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4-2. 자영업 업황이 악화됨에 따라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매수·임차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건설투자가 감소하였다.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은 2022년 관광경기 호조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2023년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4.3/4분기 임대가격지수가 기준 소규모상가가 99.9p, 집합상가가 99.8p를 기록하며 통계 편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³⁶⁾ 상가 자본수익률(매매가격상승률)도 2022년 하반기 이후 자금조달비용 상승, 관광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음(-)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임대·투자 수요 위축에 따라 지역 내 상업용부동산 건설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제주지역 상업용 부동산 착공 면적은 2024년 15% 줄어 전년의 감소세(23년 -24.2%)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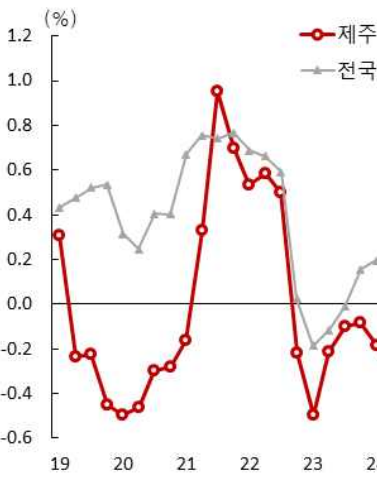
최근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매매가격의 약세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착공면적도 감소

그림 4-1.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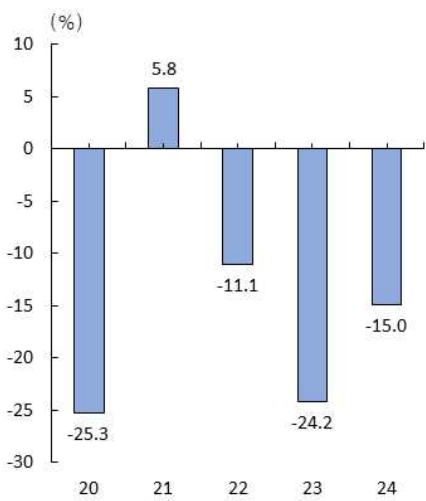
자료 : 한국부동산원

그림 4-2. 소규모상가 자본수익률¹⁾



주 : 1) 매매가격상승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

그림 4-3. 상업용 부동산 착공 면적 증가율¹⁾



주 : 1) 24년 증가율은 1~11월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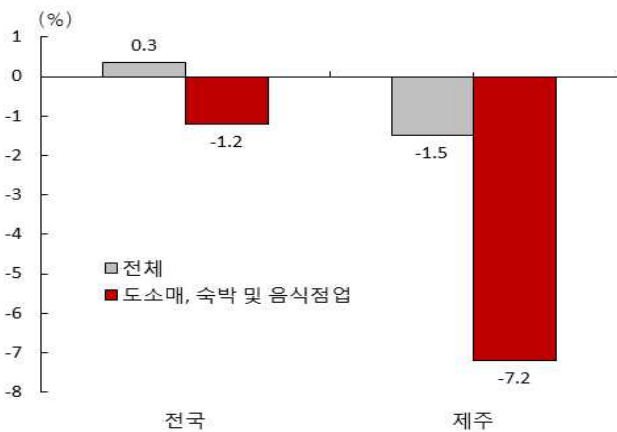
4-3. 고용 측면에서도 최근 자영업 비중이 큰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면서 타 지역보다 부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지역 취업자수는

36) 임대가격지수 통계는 소규모상가의 경우 2015년 1/4분기부터, 집합상가의 경우 2014년 1/4분기부터의 자료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입수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감소 전환(-1.5%) 하였는데, 특히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7.2%) 감소폭이 전국(-1.2%)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이후 자영업 경기 악화에 따라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종업원 고용감소도 동반³⁷⁾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인건비를 줄이고자 ‘나홀로 사장’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실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으로 창업하면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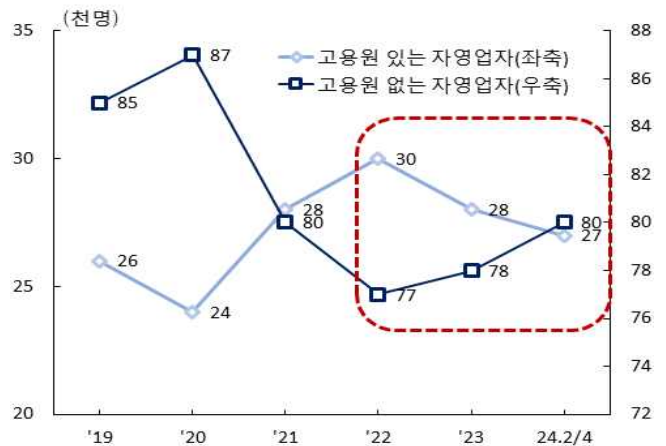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로 자영업 비중이 큰 업종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감소

그림 4-4. '24.하반기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¹⁾



주 : 1)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그림 4-5. 고용원이 있는(없는) 자영업자 수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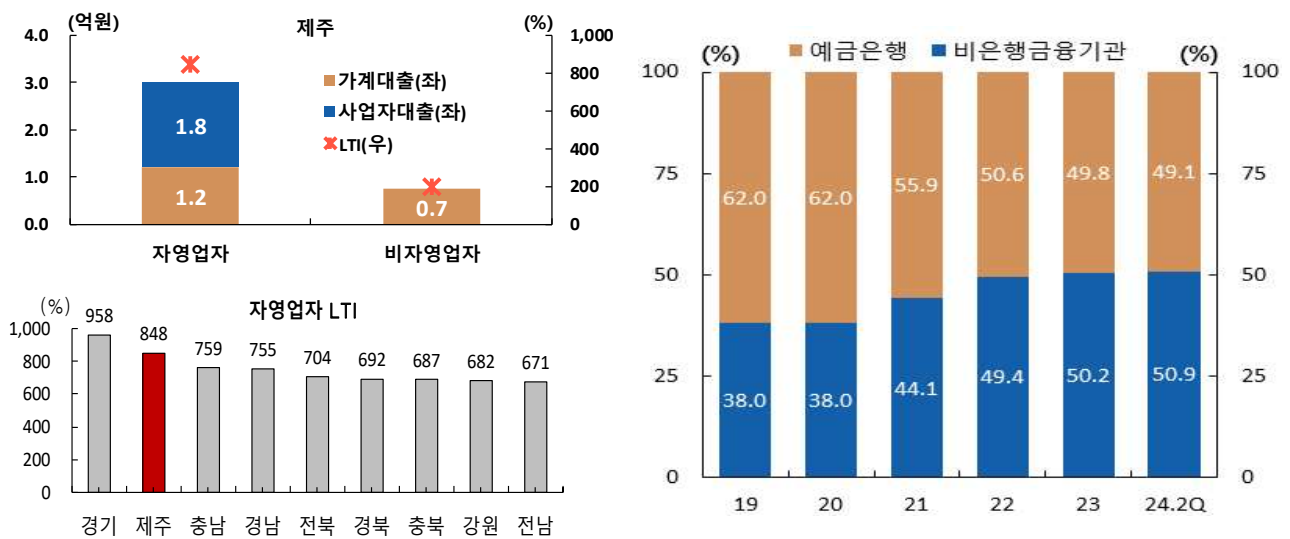
4-4. 자영업자 소득 감소 및 부채 누증으로 인한 채무부담 증대는 자영업 가계의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고, 해당 업종의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³⁸⁾ 자영업자 가구는 대부분 가계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비자영업자보다 차입규모와 원리금상환금 부담이 크고, 부채구조도 경기둔화, 상업용 부동산가격 하락, 금융여건 변화 등에 취약하다.³⁹⁾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로 소득 감소시 채무상환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클 수 있다.⁴⁰⁾ 제주지역의 경우도 자영업자 차주 1인당 대출액(24.6월말 기준)이 3억 78만원(사업자대출 1억8,135만원, 가계대출 1억1,943만원)으로 비자영업자 가계대출(7,477만원)에 비해 약 4배 규모이고,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도 848%로 비자영업자(200%)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채무부담으로 인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타 지역과 비교해도 전체 금융기관 대출 대비

37) 임금근로자의 업종별 종사자수를 볼 수 있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고용주 대상 조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024.8월부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업은 2023-24년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38) 특히 지역경제 내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감안하면 타 지역 대비 자영업자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동일한 부정적 충격에도 소비 감소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39)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이 많아 비자영업자보다 1인당 대출규모가 약 3.7배 크고 원리금상환부담(DSR)도 높다. 아울러 상가 등 담보대출이 많고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도 느슨해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하고, 일시상환대출과 만기 1년 이내 단기 대출비중이 높아 차환리스크도 큰 편이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3.6월)
40) 일반적으로 부채증가는 가용자금 확대를 통해 소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소득흐름과 괴리된 채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채무상환부담이 증대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56.4%(도지역 42.6%)로 크고, 자영업자 차주의 LTI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LTI가 높은 저소득 자영업자(LTI 1,113%)의 대출비중이 최근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채무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투자 측면에서도 최근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은 경영상황 악화로 시설투자 등 확장적 경영활동을 지양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⁴¹⁾ 한편 제주 자영업자 대출의 업권별 비중을 보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점차 확대(19년말 38.0% → 24.6월말 50.9%)되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예금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신용·저소득 차주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⁴²⁾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1인당 차입규모가 많아 채무부담이 크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

그림 4-6.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 1인당 부채규모 및 LTI¹⁾ 그림 4-7. 자영업자 대출의 업권별 비중



주 : 1) 소득 대비 대출비율(24.6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DB

41)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4.12월)에 따르면 2025년 경영목표에 대한 응답이 현상유지(24년 29.1% → 25년 60.0%), 비용절감 등 경영내실화(24년 47.3% → 25년 13.5%), 사업축소(24년 5.5% → 25년 9.2%) 순으로 높았다.

42)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도 80% 정도로 느슨하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3.6월). 제주지역의 경우 상가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업무·상업시설 매각가율(매각가/감정가 비율)도 낮은 상황(24년 기준 제주 55.4%, 전국 61.7%)이다. 최근 자영업자의 대출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자본안정성 저하 등 부실 가능성이 우려된다.

V. 정책적 시사점

5-1. 제주지역 체감경기와 밀접한 자영업 경영상황이 2023년 이후 관광객 소비 감소, 운영비용 상승, 과당경쟁 지속 등으로 악화되었고, 부진요인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경제 성장에 하방리스크가 우려된다. 최근의 자영업 부진에는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추진⁴³⁾함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과 함께 구조적 대응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업종·연령·소득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대상별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5-2. 우선 단기적으로는 핵심 비용 경감, 지역 내 인력난 해소, 매출기반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비용 경감 및 매출기반 확대)** 우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정책자금 지원요건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환능력,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한 선별적인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⁴⁾ 아울러 인력 및 각종 수수료를 경감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건비 측면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직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⁴⁵⁾하여 지원함으로써 구인난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가 키오스크, 로봇 등 자동화 기기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상승한 배달수수료에 대해서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상생 방안⁴⁶⁾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및 지역화폐 발행 규모 증대⁴⁷⁾, 외국인 대상 SNS 홍보 지원 및 결제편의성 개선, 체계적인 골목상권 활성화⁴⁸⁾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매체 및 기기의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업종·세대를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디지털 매체 활용도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도소매업

43) 제주도의 자영업자 지원정책 방향은 [참고4] ‘소상공인 관련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참고하기 바란다.

44)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인해 재단 출연금 소모가 우려된다.

45) 정부는 E-9 비자(비전문 취업비자) 적용대상을 음식업, 호텔·콘도업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2025). 현재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임업, 일반음식점업(한식, 외국식) 등에 적용된다.

46) 제주특별자치도는 ‘22년 12월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관협력형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2년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달성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골목상권 배달앱으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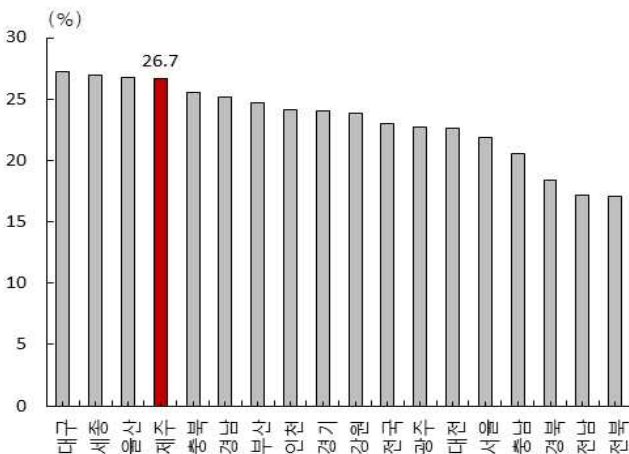
47) 정부는 2025년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 발행하였으며 할인율 및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였다(기획재정부, 2025).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연말연시 기간중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을 재개하였다(제주도청, 2025)

48)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지역 상권 발굴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상권기획자 제도(23.12월 시범 도입)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출자·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간 상권기획자 조성 사례로는 서울 연희·연남 상권(방치됐던 폐유리공장을 리모델링해 젊은 청년들이 즐겨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군산 영화타운(유동인구가 영화시장 골목의 빈 점포를 청년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등이 있다.

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주 자영업자는 정부로부터 ‘정보화 지원’을 정부로부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패키지 지원’을 통해 ‘창업-운영-폐업-재기’ 까지 창업 전 생애주기에 걸쳐 디지털 도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고령층의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타 지역 대비 숙박·음식점업은 디지털 매체 활용도가 높은 반면, 도소매업은 활용도가 낮은 모습

그림 5-1. 숙박 및 음식점 업체 중 디지털 플랫폼 거래 비중



업자들이 사전 창업교육을 수강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내 창업시 사업아이템의 다양화·차별화를 통해 자영업내 과당경쟁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⁵²⁾

- **(폐업 등 구조조정 지원)** 폐업비용 부담, 재취업 어려움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자영업 시장에 잔류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⁵³⁾ 우선 한계 자영업자가 현재 경영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전문가의 맞춤형 진단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⁵⁴⁾ 자영업자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의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폐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지원금 규모를 늘려 폐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⁵⁵⁾, 내실 있는 재취업 교육을 통해 회전문 창업을 방지하고 폐업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강화⁵⁶⁾해야 한다.
- **(퇴직 후 소득확보방안 강구)** 중장년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지속하여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근로자의 상당수가 자영업에 진입한 가운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근로자의 퇴직 시점이 임박하면서 이들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직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처리, 상권 분석 데이터 무상 제공, 동종 업계 성공 사례 견학 기회 제공, 창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 부여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52)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문화 등 지역 고유 자원의 자이점을 활용한 사업(지역가치 창업, 로컬 크리에이터)을 정책적으로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53) 제주지역의 자영업자는 여타 지역 대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퇴로지원’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3위(5.7%)). 폐업 및 이후 전략 수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실태조사, 2022).
- 54) 김경민(2022)은 우리나라는 사업의 지속 및 폐업 여부를 결정할 때, 객관적 경영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폐업 판단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위기기업의 재생가능성에 대해 전문가가 경영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에 우위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 55) 정부는 2025년부터 점포 철거 지원금(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된 사업)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평당 지원단가를 1평당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제주도 역시 최근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재개해 폐업 시 철거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24.12.30.)
- 56) 정부는 2025년부터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유인 확대를 위해 재취업자에게 훈련참여·취업성공수당, 고용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고 4 소상공인 관련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제주도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영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p>1. 경영부담 완화</p> <p>1-1. 금융지원 3종 세트</p> <p>중기자금 저금리 용자 및 연장 지원</p> <p>장기분할상환 확대(10년)</p> <p>위기극복 특별보증</p> <p>1-2. 취약 소상공인 지원</p> <p>소상공인 지원 상담 한 곳에</p> <p>한시적 이차보전금 6개월 연장 지원</p> <p>공설시장 사용료 감면</p> <p>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p> <p>1-3. 매출 지원</p> <p>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p> <p>디자인 스튜디오 운영</p> <p>생산기술 실용화 지원</p> <p>온라인 마케팅 지원</p> <p>1-4. 사회안전망 강화</p> <p>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p> <p>영세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p> <p>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p> <p>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p> <p>1인 자영업자 출산 지원</p>	<p>2. 성장 촉진</p> <p>2-1. 성장촉진 정책자금</p> <p>골목상권 살리기 특별 보증</p> <p>창업 두드림 특별보증</p> <p>중소기업 혁신·경쟁력 강화 지원</p> <p>2-2. 스마트·디지털화</p> <p>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교육</p> <p>디지털 패키지 지원</p> <p>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p> <p>공공배달앱(먹깨비) 운영</p> <p>2-3. 외식업체 경쟁력 지원</p> <p>로컬브랜드 활성화</p> <p>외식업체 컨설팅</p> <p>2-4. 향토산업 육성</p> <p>스마트 공장 확산</p> <p>중소기업 성장 지원</p> <p>우수제품 품질 인증</p> <p>제주제품 판로 확대</p> <p>사회적경제기업 육성</p>	<p>3. 재기 지원</p> <p>3-1. 폐업 지원</p> <p>브릿지보증</p> <p>원상복구 지원</p> <p>3-2. 재창업 지원</p> <p>청년 재창업 지원</p> <p>희망 더하기</p>
		<p>4. 지역상권 활성화</p> <p>4-1.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 강화</p> <p>자율상권 구역 지정 운영</p> <p>골목상권 점포환경 개선</p> <p>버스킹 잇는 날 운영</p> <p>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p> <p>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화</p> <p>골목상권 지정기준 완화</p> <p>노후시설 현대화</p> <p>주차환경 개선</p> <p>시장 경영·안전관리 패키지</p>

참고문헌

- 고지성(2022) “팬데믹 이후 강원지역 자영업황의 특징적 변화 및 향후 정책과제”,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연구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2025) “2025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
- 구진경, 조재한(2024)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 「산업경제분석」, KIET 산업연구원
- 권순성, 김소연(2023) “최근 제주지역 청년인구 순유출 요인 및 시사점”,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연구보고서
- 김대용, 서정원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제2022-2월호, 한국은행 조사국
- 김동욱, 나용남, 이현재(2024) “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 폐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연구 보고서
- 남윤미(2017),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17-5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민상오(2022) “최근 제주지역의 고용회복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연구보고서
- 박으뜸(2024) “제주 자영업자 폐업 증가세 확대”, 현장리포트, 「지역경제보고서」, 제2024-9월호, 한국은행
- 박으뜸, 김소연(2024)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평가 및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제주본부 보도자료
- 서울경제, “빛 쌓이는 지역 경제... ‘연체율 1위’ 제주,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4/09/02/20240902016006>
- 선진산, 안중섭, 김민수(2024)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 조사연구보고서

송상윤(2024) “제주지역, 14년 만에 인구 순유출”, 현장리포트, 「지역경제보고서」, 제 2024-3월호, 한국은행

송상윤, 김동준, 배한이(2023)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BOK 이슈노트」, 제 2023-35호, 한국은행

양재운(2023) “제주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연구보고서

우한솔, 김현태(2021) “제주지역 민간소비 확대의 제약요인 점검”,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연구보고서

이유경, 송은주(2024)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관광 경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연구보고서

이지은(2024) “강원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연구보고서

조윤구, 민상오(2023) “제주지역 자영업자 대출의 특징과 채무상환능력 평가”,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연구보고서

조장희, 이상원, 김소연(2023) “제주지역 서비스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고용 및 생산성 변화”, 한국은행 제주본부 외부 공동연구

제주도청(2024), “제주도, 2025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추진”, 보도자료,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함건, 황호찬(2023) “전북지역 자영업자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전북본부 조사연구보고서